

시론

한글 사랑하기

지난해 KBS에서 매주 토요일 밤마다 진행해오던 심야토크 방송...

상표마다 뜻모를 외국어

모 재벌기업의 회장이라는 양반이 외국어로 상표를 붙여야만 수출이 잘 되고 내수시장에서도 활발한 제품 수요가 있다면서...



김용오 (시인)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시장 곳곳을 자기집 안방처럼 들락거리며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다라서 남의 나라 말이나 기술만 빌려다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끈질긴 인내심과 성실성 그리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함께 동행해서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을 타하기 전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가까운 주변부터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길 거리에 나가면 쉽게 만나게 되는 상점 간판들 하나라도 좀더 신경을 기울이면서 바라보자는 거

다. 무슨 뜻인지도 모를 외국어로 도배를 해놓은 그 많은 간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감칠맛나는 우리 말의 간판이 있거든...

무엇이든 처음에는 좀 어설피고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 모두가 다 부질없는 기우였음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상가에 문상을 갈 때 하얀 봉투에 항상 '근조' '부의'라고 쓰기도 하는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로 바꿔 써보고, 절혼식에 갈때도 '축 결혼'이라는 상투적인 말보다는 '행복하소서'라는 문장을 써보기도 하고, 책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증정할 때 'OO선생님 혜존'이라고 하지 말고 'OOOO선생님 받아 보소서'라는 말로 풀어쓴다면 삶이 한결 정겨우고 가슴에 와닿는 느낌 또한 다르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보통사람들의 변화에 기업가들도 눈물 흘릴 것이고 그들이 만드는 상품 하나하나에도 한국어의 표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글과 말부터 발상의 전환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보통사람들의 변화에 기업가들도 눈물 흘릴 것이고 그들이 만드는 상품 하나하나에도 한국어의 표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열린마당

복합기 불교창구

콧주림에 시달리는 복녘동포를 돕기위한 불자들의 마음이 뜨겁다. 교계에는 연합단체형태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와 복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가 캠페인과 모금행사 등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동포에 희망” 명분 같아... 단일화해야

도범 <남원 실상사 주지>

불교계가 내 동포를 살리는 일에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은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의 당연한 도리이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만에 결속된 힘을 ‘동포 살리기’라는 똑같은 명분임에도 여러 창구로 나누어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 교계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구마다 다양한 사업 ‘민간교류 발판’

김동훈 <경북련 운영위원장>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복녘동포돕기운동은 단지 식량을 전달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는 이휘질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남북 경수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민간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작은 희망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식량을 조건으로 민간교류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지원을 계기로 그다음 민간교류의 발판을 다지는 계기를 모색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모금한 돈·옷가지 어디다 보내야 할지”

김자경 <맑고향기로운모임 실장>

기회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물며 그것이 콧주림에 시달리는 내 동포를 돕는 일이라면... 그러나 우리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해서 현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의식주 전반에 걸친 것들이라

적 부담과 함께 혼란만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량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된 힘으로 결속할 때만이 대중의 의견을 공문화하며 정부가 식량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인도적인 사업은 종교계가 앞장설 때 더욱 빛난다. 불교계는 자체 역량을 키워 정부의 의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교계 복합기 창구 단일화를 통해 식량지원 과정에서 부담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며 정보를 공유할 때, 동포를 위한 복합기운동의 함의를 살리며 최대한 빨리 많은 식량을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민족돕기불교본부

96년 12월 발족 ‘밥한공기 나누기’ 활동 활발

있는 각종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교계내 복녘동포돕기 ‘봄’을 형성하기도 했다. 현재 8억2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불교운동본부는 그 중 6억6천여만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복합기불교추진위

중단협등 참여 ‘백일 결사’ 통해 전국사찰서 모금

“정부가 민간단체의 식량지원에 있어 허용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현실에서 큰 규모로 단체로는 발빠른 식량전달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복녘동포돕기운동은 94년 조계종 계획이후 교계 최대운동으로 자리잡으며 불심을 결집시키고 있다.

교계 복합기 창구 현황

95년 이후 북한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식량난의 심각성은 소위 말하는 ‘인공기 계약사건’ 이후 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복녘동포를 살리기’는 종교·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했다.

교계에서는 지난해 12월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가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 복녘동포돕기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복녘동포를 돕자’는 단일목적 아래 결성된 두 단체의 활동은 북을 향한 남북불자들의 불심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교추진위는 발족 당시 범종단 단일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불교운동본부에 동행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교계내 복합기 선두주자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불교운동본부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민족돕기불교본부

96년 12월 발족 ‘밥한공기 나누기’ 활동 활발

있는 각종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교계내 복녘동포돕기 ‘봄’을 형성하기도 했다. 현재 8억2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불교운동본부는 그 중 6억6천여만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복합기불교추진위

중단협등 참여 ‘백일 결사’ 통해 전국사찰서 모금

“정부가 민간단체의 식량지원에 있어 허용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현실에서 큰 규모로 단체로는 발빠른 식량전달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족돕기불교본부

96년 12월 발족 ‘밥한공기 나누기’ 활동 활발

있는 각종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교계내 복녘동포돕기 ‘봄’을 형성하기도 했다. 현재 8억2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불교운동본부는 그 중 6억6천여만원을 북한에 지원했다.

복합기불교추진위

중단협등 참여 ‘백일 결사’ 통해 전국사찰서 모금

“정부가 민간단체의 식량지원에 있어 허용보다 규제를 더 많이 하는 현실에서 큰 규모로 단체로는 발빠른 식량전달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Advertisement for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The Most Mysterious Holy Medicine) featuring 山蔘 (Ginseng). Includes text about it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ul 'Jangdo Mountain Ginseng' business.

Advertisement for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Buddha's 2542nd Birthday Calendar Distribution Notice). Includes details about the calendar, pric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